[성장 과정]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친구는 집에 종종 놀러 오셨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용산에서 조립형 컴퓨터 판매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가게에 자주 놀러가면서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친숙해진 저는 커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직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직업이 웹 프로그래머 였습니다. 진로가 정해진 후 대학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과는 컴퓨터 공학과로 정하게 되었고 학업에 전념하며 열심히 해왔습니다.

[성격 장점]

조직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이 기초가 되는 직무인 만큼 소통의 중요성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립되는 의견은 항상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저의 의견만을 고집한 경험은 없습니다. 팀원들 간의 대립점이 발생한다면 협의점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게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장점으로 제가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빠르게 적응하고, 팀원들 간의 소통을 조율해 협업의 효율을 늘리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

대학에서는 전문대라는 짧은 기간과 코로나 시즌이 같이 터져버리면서 협업은 물론 실습까지 부족한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팀플과 경험을 채우고자 국비지원 학원에 지원해 6개월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원하던 대로 많은 실습과 팀플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GIT을 이용하여 협업하고 , 다양한 사람들과 CRUD 기반의 요구사항을 써보고, 데이터를 짜보며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닌 협업으로 개발하는 직무라는 것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웹 사이트인 만큼 사용자에게 있어 친절한 웹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꾸준히 배워 나가며 실력을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피하지 않고 새롭게 공부해서 적용시킨다는 마인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느 자리에 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의 능력과 자질이 귀사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